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CNBC: 미 수입 물가 2008년 이래 최대…중국산 비용 증가로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장기간 5% 상회… 부채·AI 투자가 원인
- Bloomberg: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해 두번째로 높아

[주택]
- CNBC: 주택 모기지 금리 상승 불구 대출 수요 증가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미국, 이란 군사 시설 등 연거퍼 공습

[오일]
- CNBC: 브렌트유 95달러 부근으로 상승 유지
- Bloomberg: 예멘 반군의 위협으로 홍해 원유 흐름도 차질

[트럼프 관세]
- Bloomberg: 미국, 이번주 임시 관세 만료로 새 관세 부과 추진
- CNBC: 연방 상원의원, 트럼프 관세 제한 법안 발의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YahooFinance: GM, '구독형 기업'으로 탈바꿈 중… 마진율 70% 달성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CNBC: Import prices post surprise gain as costs of goods from China hit highest since 2008
미 수입 물가 2008년 이래 최대…중국산 비용 증가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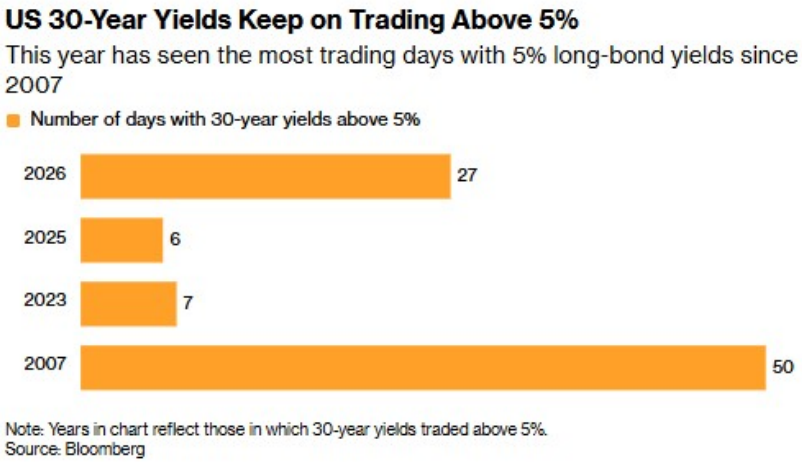
- 연방 노동통계국은 중국산 제품 가격이 18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올라 6월 미국 수입물가가 예상외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.
-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지만 다른 품목들이 상승하면서 월간 수입물가는 0.3% 상승했다. 전년 대비로는 수입 물가가 7.1% 급등하여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.
- 컴퓨터, 주변기기,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AI 인프라가 물가를 자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US 30-Year Yield Raises Alarm in Longest Run Above 5% Since 2007
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장기간 5% 상회… 부채·AI 투자가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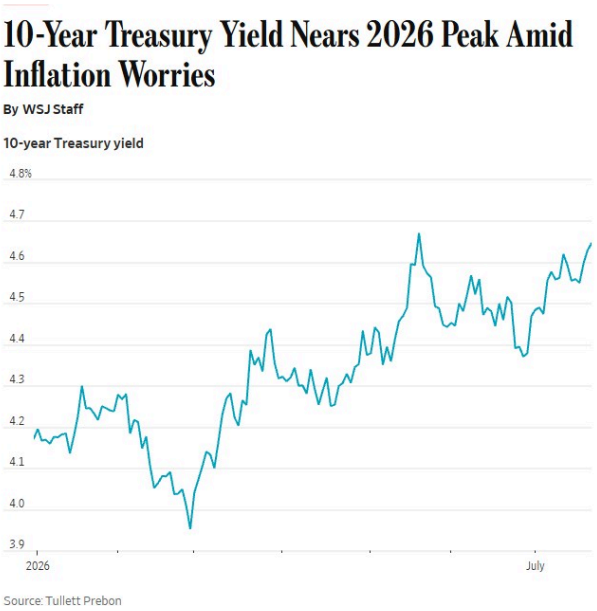
-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초기 이후 가장 오랜 기간 5%를 웃돌고 있다. 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잘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.
- 장기 국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이 맞물린 결과다.
- 국가 부채 확대 불안감과 더불어 AI 재원 조달용 채권 발행으로 채권 인수 경쟁이 치열해지자, 투자자들은 재무부가 30년물 국채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프리미엄(금리)을 요구하고 있다.



기사

WSJ: 10-Year Treasury Yield Nears 2026 Peak
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해 두번째로 높아

- 주택 모기지 금리 등 시중 금융 비용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-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(Dow Jones Market Data)에 따르면,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5월 29일에 기록했던 연중 최고치인 4.668%와 불과 몇 베이시스 포인트
-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치솟았다.
- 금리와 관련 물가가 안 잡혀 금리가 늦게 내릴 것으로 보이며, 시장에 국채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.



기사

[주택]

CNBC: Mortgage rates are rising again, but homebuyers are seeing some advantages
주택 모기지 금리 상승 불구 대출 수요 증가

- 지난주 주택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으나, 매수 경쟁이 줄어들고 가격 인하 매물이 나오자 차츰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전체 대출 수요는 전주보다 1.9% 늘었다
- 미국모기지은행협회(MBA)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.65%에서 6.69%로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금리에 민감한 리파이낸싱 수요의 경우는 전주 대비 2% 감소했으며, 전년 동기 대비로는 7% 증가하는 데 그쳤다. 지난해 같은 기간 금리는 현재보다 0.15%포인트 높았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US Widens Strikes on Iran as Both Sides Downplay Diplomacy
미국, 이란 군사 시설 등 연거퍼 공습

- 미국이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(Tabriz) 인근 군사 시설을 포함해 이란 내 타격 대상을 확대하며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, 트럼프는 평화 회담 재개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.
- 이란 정부는 수도 테헤란 일대의 방공망을 가동했고, 미국이 이란 내 다수의 거점을 타격함에 따라 이란 역시 쿠웨이트, 바레인, 요르단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향해 공격을 가하며 11일 연속 양측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.
- 트럼프는 이란 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을 향해 사격할 경우 교량과 발전소 등 이란 내 주요 인프라 타격을 경고했고, 이에 이란 측은 자국 핵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"강력한 보복 타격"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.

기사

[오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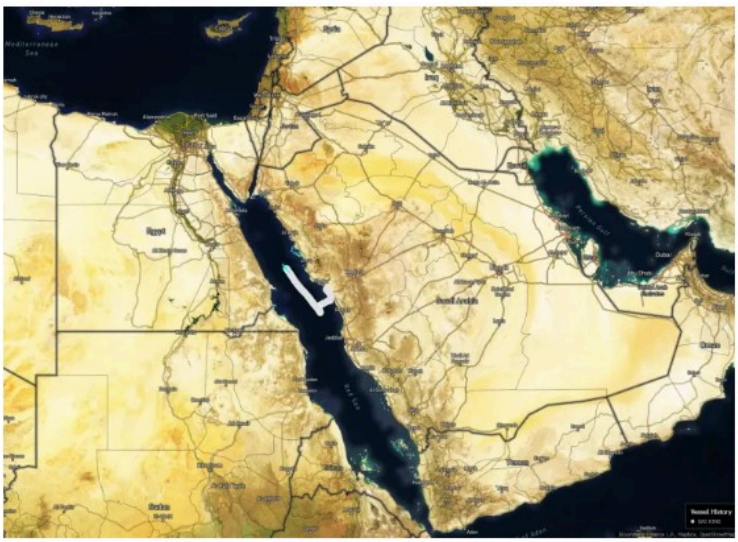
CNBC: Brent oil price hovers near $95 as Rubio says U.S. will ‘continue to protect shipping’ in Hormuz
브렌트유 95달러 부근으로 상승 유지

-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평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.
- 브렌트유 선물은 2.5% 오른 배럴당 93.32달러,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2.3% 상승한 86.31달러를 기록했다.
- 필리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장관은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지만 이란 측의 종전 합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.

기사

Bloomberg: Houthi Threats Give Oil Markets a ‘Two Chokepoint Problem’
예멘 반군의 위협으로 홍해 원유 흐름도 차질

-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인도양 연결 입구인 바브알만데브(Bab-el-Mandeb) 해협을 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 금지를 선포하면서, 홍해 남부 해역에서 선박들의 회항이 잇따르고 있다.
-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스에즈 운하 방향인 북쪽으로 회항하거나 항해를 일시 중단했으며, 후티 측의 발표 이후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유조선 운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.
- 걸프만 내 군사적 충돌 재발과 미·이란 간 휴전 무산으로 이미 충격을 받은 글로벌 석유 시장은, 이번 홍해 해상 물류 차질로 인해 원유 공급 압박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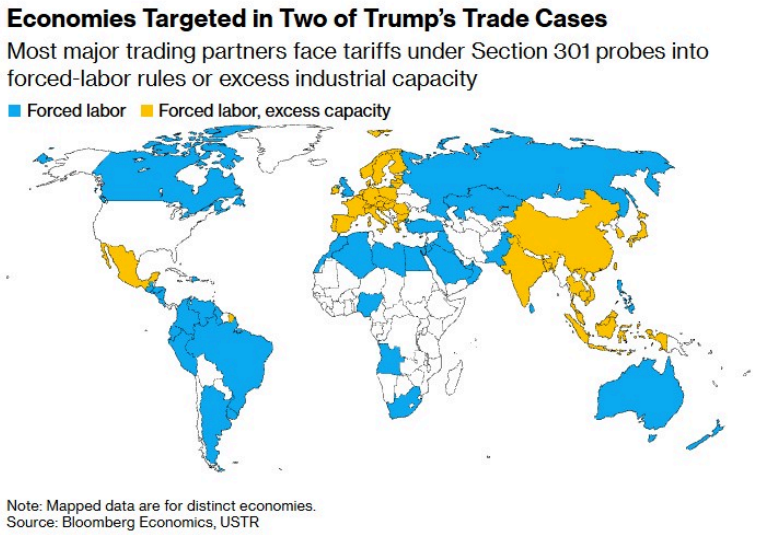
The Gas King was seen U-turning to head toward the Suez Canal in the north of the Red Sea. Bab el-Mandeb is to the south. *Source: Bloomberg*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Bloomberg: US Set to Impose New Tariffs by Friday With Stopgap to Expire
미국, 이번주 임시 관세 만료로 새 관세 부과 추진

-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십 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됐다.
- 트럼프 행정부는 느슨한 강제 노동 기준을 이유로 (301조를 명목으로) 60개 무역 상대국에 대해 최소 10%의 신규 관세를 제안했으며, 이번 주말까지 관세 부과를 강행할 방침이다.
-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, 백악관은 만료 예정인 임시 과세 조치(122 조항 근거)와 신규 관세 부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공백을 막게될 것으로 보인다.



기사

CNBC: Sen. Wyden introduces bill to curb Trump's tariff powers
연방 상원의원, 트럼프 관세 제한 법안 발의

- 론 와이든(민주·오레곤) 연방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.
- 수입 관세를 설정하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 일부를 박탈하고, 남아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.
-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는 트럼프가 거의 100년 동안 거의 사용된 적 없는 옛 무역법을 구실로 캐나다산 제품에 50%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법안을 공개했다.
- 그는 성명을 통해 "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용한 모든 무역 권한을 남용해 왔으며, 이제는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무역 파트너에게 단독 관세를 물리고 있다"고 비판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YahooFinance: GM is quietly becoming a subscriptions company
GM, '구독형 기업'으로 탈바꿈 중… 마진율 70% 달성

- GM이 소프트웨어·구독 사업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. 2분기 '온스타(OnStar: 인공지능 비서 구독 서비스)' 매출만 약 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자율주행 '슈퍼크루즈(Super Cruise)'와 함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.
- 구독 모델은 일회성에 그치는 차량 판매와 달리 고마진 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. GM은 향후 신규 부품 추가 대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.
- 일반 차 판매 마진율이 4~10%에 불과한 반면, GM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매출 1달러당 70센트(마진율 70%)를 남기며 독보적인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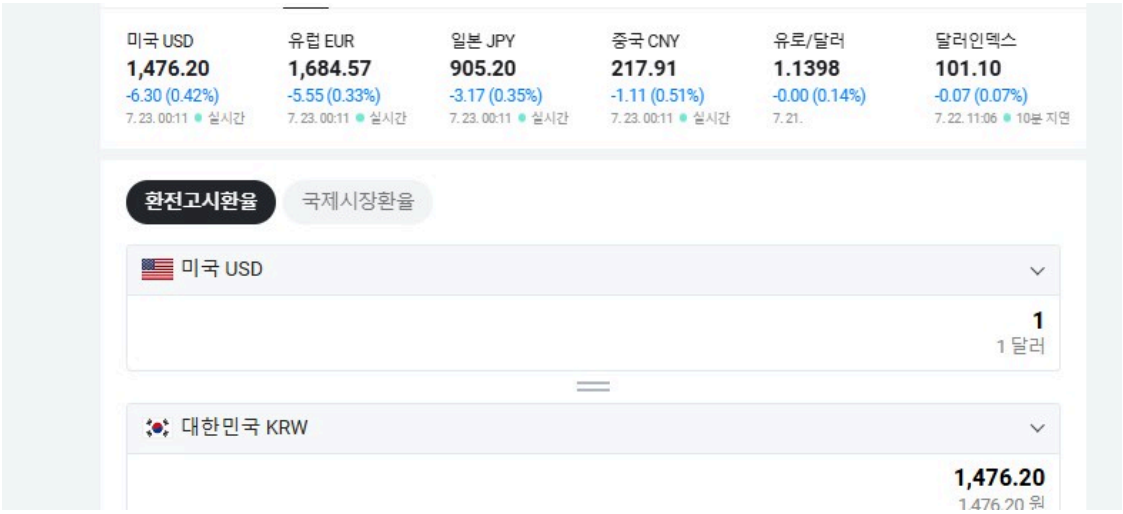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305.30	+81.4	+0.16%
US 500	7,514.10	+4.9	+0.07%
Dow Jones	52,307.32	+82.68	+0.16%
S&P 500	7,514.11	+4.90	+0.07%
Nasdaq	25,811.54	-25.67	-0.10%
S&P 500 VIX	16.91	-0.14	-0.82%
Dollar Index	100.93	-0.071	-0.07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1/32	5.141	0.008
10-Year Note	4.375	-24/32	4.656	0.027
7-Year Note	4.25	-2/32	4.526	0.031
5-Year Note	4.125	-1/32	4.409	0.032
3-Year Note	4.125	-1/32	4.345	0.034
2-Year Note	4.125	-1/32	4.311	0.033
1-Year Bill	0	1/32	4.106	0.026
6-Month Bill	0	1/32	4.013	0.048
3-Month Bill	0	1/32	3.844	0.026
1-Month Bill	0	0/32	3.705	-0.001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